



## 주요국 고령자 생활실태 비교

이상우 수석연구원

주요국 고령자 생활실태 비교 결과 가사분담은 스웨덴, 공적연금 노후소득 의존도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이,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노후준비 응답률은 스웨덴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응답률이 높음. 반면 한국은 주 1회 이상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고,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의존도와 개인연금 가입 응답률이 가장 낮음

■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의 노후생활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sup>1)</sup>를 2016년 6월에 발표함

- 주요국 고령자 노후생활 실태조사는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요양소 등 시설 입주자 제외)를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에 현지 국가에서 실시하였으며, 국가별 표본크기는 1,000개 이상임
- 실태조사 주요 설문내용은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노인복지제도 이용, 노후경제생활, 취업 희망, 주택 및 생활환경, 사회관계, 불안요인 및 만족도, 고령자 정책의 인식 등으로 구성됨

■ 고령자의 가정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질문한 결과 주요국 모두 가사분담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스웨덴은 가사분담이 압도적(74.1%)으로 높았으며, 일본은 생계활동과 가정 내 역할 없음의 응답률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가정 내 가사분담, 가족대표, 생계활동, 가족상담의 순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 『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이하 주요국 고령자 노후생활 실태조사)

〈표 1〉 고령자의 가정 내 역할

(단위: %)

연도	가사분담	생계활동	가족대표	역할 없음	가족 상담	손자육아
미국	33.8	11.4	29.3	9.0	6.9	4.0
독일	43.3	11.1	25.5	8.7	2.5	2.7
스웨덴	74.1	6.5	7.1	6.5	0.4	0.6
일본	40.1	24.0	15.8	12.3	3.3	0.9
한국	36.5	14.5	26.5	3.6	13.3	3.3

주: 한국은 2010년 설문조사 결과(이하 동일)  
 자료: 일본 내각부(2016)

■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주 1회 이상의 응답률은 한국(17.0%)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독일, 미국, 스웨덴 순으로 높음

〈표 2〉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단위: %)

연도	주 1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연 수회	이용 안함
미국	5.4	7.0	14.2	61.6	11.7
독일	6.1	9.2	15.2	50.1	18.7
스웨덴	1.9	4.4	8.6	76.5	8.6
일본	7.0	11.3	39.7	22.5	19.1
한국	17.0	15.2	27.0	31.6	9.3

자료: 일본 내각부(2016)

■ 노후생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반면, 한국의 경우 취업소득(37.5%), 자녀지원(30.1%)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적연금(10.6%)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3〉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

(단위: %)

연도	취업 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적금	재산수입	자녀지원	생활보호
미국	22.5	55.0	12.5	2.8	3.5	0.7	1.2
독일	10.3	77.2	3.3	2.3	2.2	0.5	1.4
스웨덴	16.7	72.6	4.4	0.5	0.5	0.1	2.3
일본	23.4	70.8	1.1	0.7	1.1	0.8	1.0
한국	37.5	10.6	2.6	8.9	4.7	30.1	4.1

자료: 일본 내각부(2016)

■ 50세까지 노후대책을 위해 가장 우선한 준비방법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스웨덴 제외)에서 예·적금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개인연금과 금융상품 가입의 응답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음
- 반면, 한국은 개인연금 가입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 노후생활비 준비방법

(복수응답 기준, 단위: %)

년도	예적금	개인연금	금융상품	부동산	귀금속	직업개발	준비 않음
미국	56.7	42.6	33.2	15.9	5.6	13.8	20.9
독일	62.1	15.2	13.5	21.4	2.8	8.0	53.1
스웨덴	29.7	56.7	40.5	6.8	0.7	3.2	25.4
일본	46.6	19.6	7.1	5.0	0.5	6.4	42.7
한국	26.8	11.0	1.0	11.1	0.1	4.3	61.9

자료: 일본 내각부(2016)

■ 주요국 비교결과 가사분담 응답률은 스웨덴, 공적연금에 노후소득 의존도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노후준비 응답률은 스웨덴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일본은 가정 내 역할 없음과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월 1회)가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노후준비 응답률이 낮은 수준임
- 반면, 한국은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주 1회 이상)가 가장 높고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의존도와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노후준비 응답률이 가장 낮음 **kiri**